



## 세계서 인정받은 미세먼지 저감 조경 대단위 녹지 거닐며 여유로움 만끽

### 아파트의 미학(美學)

#### <29> 래미안아트리치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위치한 ‘래미안아트리치’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뽑내는 녹지공간의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시공한 이 아파트는 석관2구역에 재개발해 지난 2019년 입주를 시작했다. 아파트 주변 일대는 노후 주거시설이 많았다. 총 13개구역으로 나뉜 이 곳은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인근에는 장위뉴타운과 이문휘경뉴타운이 새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 ◆ ‘우이계곡풍경원’ 등 자연친화 조경 호평

래미안아트리치를 탐방하기 위해 청량리역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경희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있는 대학가 골목을 지나자 총 14동 1091가구 규모의 깔끔하게 정돈된 아파트 단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단지 안에서 관리실 관계자를 만나 내부 조경과 커뮤니티시설 등을 살폈다. 탁 트인 공간에 중간 중간 놓여있는 조형물과 수경시설 등이 입주민들에게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었다. 비가 조금씩 내리는 흐린 날씨였지만 발걸음을 멈추고 휴게공간에서 쉬고 있는 입주민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 자연을 형상화한 수경시설이 압권이다. 석가산 생태연못인 ‘우이계곡풍경원’ 단지 인근 천장산과 우이천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양방향으로 흐르는 소폭포와 수초들이 자연 속 계곡의 이미지를 더했다.

#### ◆ 세계조경가협회서 인정, 미세먼지 저감 노력

바로 옆에 설치된 ‘다담정’이라는 이름의 휴게시설은 우이계곡풍경원의 모습을 액자형 프레임 구조로 감상할 수 있게 설치됐다. 이곳에 앉아 석가산 친수시설을 바라보면 액자 속 사



‘우이계곡풍경원’. 인근에 있는 천장산과 우이계곡을 형상화했다.

/정연우 기자

#### 천장산·우이천 형상화 수경시설 압권 ‘2020 IFLA AAPME’ 어워드 수상 국공립어린이집, 도서관 단지 내 위치

진을 보는 것과 같은 풍경이 연출된다. 다담정 상단부에 설치된 미스트를 통해 미세먼지를 흡착하고 기온을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에 따르면 래미안아트리치는 지난해 세계조경가협회(IFLA)에서 주관하는 ‘2020 IFLA AAPME(Africa, Asia-Pacific, Middle-East) 어워드’에서 열성현상 및 내화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세계조경가협회는 지난 1948년 창설돼 현재 77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보유한 전 세계 조경가들의 대표기관이다. IFLA 시상식은 세계 조경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게 삼성물산 건설 부문 측의 설명이다.

안내를 받고 단지 안쪽 중앙광장으로 들어갔다.

아파트관리실 관계자는 “이 곳 중앙광장은

입주민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공간”이라며 “조경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호평을 받고 있으며 단지 외곽 산책로에 대해 칭찬하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중앙광장 근처에는 ‘돌곶이계류원’이라는 이름의 한적한 연못이 있다. 천장산의 낙수가 벽과 소나무의 조화가 연못의 아름다움을 더했다. 조경시설 외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도서관, 경로당이 단지 내에 위치했다. 경로당 옥상에는 텃밭이 조성됐다.

한편 래미안아트리치는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과 6호선 돌곶이역이 걸어서 8분여 거리에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이 개통되면 청량리역부터 삼성역까지 한 정거장만에 도달 할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석관초등학교가 근처에 있으며 한국외국어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이 있으며 인근에는 세계문화유산인 의릉과 중랑천, 천장산, 북서울꿈의숲 등이 자리하고 있어 쾌적한 주변 환경을 자랑한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야외 녹지공간.



야외 휴게시설.



‘돌곶이계류원’.

###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경찰 “화이자 접종 고3 사망 가짜뉴스… 엄정 수사”
- ▲ 현업·원론언론인들, 언론특위 환영 “사회적 합의기구 돼야”



- ▲ 코로나 와중에…영유아 호흡기 감염 마저 확산 /사진 뉴시스
- ▲ ‘서울대 사망 청소노동자’ 유족 산재 신청… “명백한 산업재해”



- ▲ 탄소중립위 종교위원장 전원 사퇴 “정부 탄소중립 의지 의심된다” /사진 뉴시스
- ▲ ‘n번방 핵심’ 첫 대법 확정판결…와치맨, 징역 7년